2019. 8. 12. (월) 언론보도

2019년 08월 09일 (금)

노컷뉴스

종합

20.6km 'DMZ 파주 둘레길' 10일부터 걸을 수 있다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기념식' 9일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등 참석 이 지사 "남북간 평화와 경제, 난국 이기는 길"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9일 오전 '파주 DMZ 명화의 길'을 현장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대표 및 탐방 학생 등과 동문 앞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갈' 파주구간이 10일부터 일반인들에 게 개방된다.

도라전망대, GOP 동문, 516 절거GP 등 민동선 이북지역과 절거 GP를 넘나드 20.6km 길이의 물레길 코스인 '파주구간'은 지난 4월 '고성구간', 6월 '절원구간'에 이어 개방되는 것으로 9일 기념식이 열렸다.

파주 도라산 역에서 열린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기념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정통채 전 문화제육관광부장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 위원장 등과 이산가족, 학생, 도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남북분단과 갈등, 대립 등 한반도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문제인 대통령의 말 처럼 남북간 평화와 경제가 이 난국을 이기는 새로운 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는 등 '평화 경제의 꽃'이 피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간일하게 협력하면서 비무장지대를 역사, 생태, 문화가 함께하는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도라전망대와 A통문, 철거 GP로 이어지는 'DMZ 평화의 길' 현장을 방문한 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작성해 절거 GP 소망트리에 전시 했다.

한편,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점상이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에서 추진됐다.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방문을 원하는 이들은 'DMZ 평화의 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dk7fly@cbs.co.kr



DMZ 걸으며 평화 느껴요...시범구간 모두 개 방



[앵커] 강원도 고성, 철원에 이어 오늘부터는 경기도 파주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됐습니다.

시범구간이 모두 개방된 건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 걷기 여 행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파주 DMZ 평화의 길 시범구간이 개방되면서 분단의 상징이던 비무장지대, DMZ가 나들이 장소로 변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평화가 입상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이 행하고, 군사적 신뢰를 쌓아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성, 철원에 이어 새로 개방된 파주 구간은 모두 21km로 차를 타거나 걷는 구간을 합치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전망대를 지나 철거된 감시초소 등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용성주 / '파주 평화의 길' 해설사 : 여기는 볼 것이 많습니다. 철거 GP뿐만 아니라 임진각 부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정말 멋있습니다. 그 구간, 그리고 통일대교....]

때때로 대피소 생활을 하며 긴장을 이어오던 접경 지역,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피부로 느껴 지는 DMZ의 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김동구 / 대성동 마을 이장 : 지금까지 DMZ라는 곳을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 런데 지금은 길이 한번 열린 거죠. 그래서 오신 분들도 뜻깊은 마음으로, 가시면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DMZ 평화의 길'의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2022년까지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세계적인 건기여행길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DMZ 평화의 길 탐방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한연회입니다.



이재명 지사,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개방 행사' 참석..."평화...꼭 가야할 길"

이재명 지사, "평화, 멀지만 꼭 가야할 길"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오는 10일부터 국민 개방



[KFM 경기방송 = 설석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인 하계 휴가를 마치고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개방 행사에 "쉽지는 않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남북분단과 갈등, 대립 등 한반도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문재 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간 평화와 경제가 이 난국을 이기는 새로운 길일 수 있 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이 삶의 현장이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 다"며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 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메시지카드에도 '평화, 멀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은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도라전망대 ▲GOP 통문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드는 20. 6km 길이의 둘레길 코스인 '파주구간'이 지난 4월 '고성구간'과 지난 6월 '철원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개방됨에 따라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주 도라산역에서 개최된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기념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연절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 정위원장 등 내빈과 이산가족, 학생, 도민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10일부터 일반인 에 개방



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민간인 줄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일(10일)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도에 따르면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기념식'이 오늘(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개최됐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파주구간'은 ▲도라전망대 ▲GOP 통문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 거 GP를 넘나드는 20.6km 길이의 둘레길 코스입니다.

'고성구간'과 '철원구간'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개방됐고, '파주구간'이 마지막으로 조성됐습니다.

군은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경호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내빈과 이산가족, 학생, 도민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

2019년 08월 10일 (토) 경제 10면

매일경제



'DMZ 평화의 길' 개방 행사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다섯째) 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여섯째)가 자역주민들과 함께 9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비부장지대(DMZ) 평화의 길' 개방 형사에 참석해 지금은 철거된 감사초소가 있던 자리를 둘러보고 있다. 【僧‧】

중부일보

2019년 08월 12일 (월) 수도권 10면



파주 GP 평화의 길 개방 지난 9일 파주에서 열린 '디엔지(DMZ) 평화의 길' 개방행사에 참석한 김언철 홍일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산 가족, 대성동마음 등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철겨된 바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둘러보고 있다. 당시 남북은 바무장지대 내 GP 11개를 시범 철거하기로 하고, 이 중 1개는 보존하고 10개를 철거했다. 이곳 파주 GP 자리도 여째 철거한 것 중 하나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DMZ 평화의 길' 마지막 파주구간 개방

道, 철거 GP 등 20.6km코스 새단장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인이 제한됐 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새 단장 의회 정대운(만·광명2) 기획재정위원장 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됐다. 지난 4월 고 등 내변과 이산가족, 시민 등 20여명이 성구간과 지난 6월 철원구간에 이어 마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막으로 개방되는 파주구간은 ▲도라전 망대 ▲GOP 통문 ▲516 천거GP 등 민 통선 이복자역과 철거 GP를 넘나드는 20.6km의 둘레길 코스로, 지난 10일 개방 으로 남북 북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팽 화의 공간으로 재다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 조 성사업'은 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 에서 납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시합이다. 군은 'DMZ 평화의 길'에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 해 철저한 경호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 시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이 훤손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 중인 결과 도로를 있는 그 대로 사용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종 유입,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대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들 은 'DMZ 평화의 길' 사이트(http://w ww.dmzwalk.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일 파주 도라산약에서 열 린기념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동복아에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해한 일을 다 말아서 하겠다"고 감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 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도

/이종태·김성주기자 ksj@kveongin.com

기호일보

분단의 상징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파주구간 민간 개방

남북 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막 했던 파주지역 'DMZ 평화의 길'이 지난 10일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은 도 라전말대와 GOP통문, 516월거G 관, 절대유경기도의회기회재정위 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거GP름 오가는 20.6km 길이의 구간이다.

지난 4월 고성 구간과 6월 월월 완료됨에 따라 부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재조명 될 정맛이다.

민간 개방에 앞서 9일에는 파주 도라산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김 연절 통일부 장관, 최종한 파주시 장, 정통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위장, 이산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에서 "쉽 구간에 이어파주 구간까지 개방이 지는 잃지만 꼭 가야 될 길이다. 이 살의 현장이 남북 평화와 곳동 번 영의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 도모수저 자연화 '도부'는 '다" 다 '다'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동북아에 거 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그날까 지 경기도가 험한 일을 다 말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장관은 "접정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 제가 다시 활력을 얻는 등 '평화경 제의 꽃'이 피게 될 것"이라며 "장 부는 앞으로도 접정지역 지방자치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비 무장지대를 역사·생태·문화가 함 께 하는 평화의 중심지로 반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목 기자 panic#?@kihoilbo.co.kr

인천일보

2019년 08월 12일 (월) 종합 01(경기판)면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활짝

도라전망대·철거 GP등 20.6km둘레길 코스

남북 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하 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지 난 10일부터 개방됐다.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 조성사업'은 시작됐다. 거 GP를 넘나드는 20.6km 길이의 돌레 길 코스다.

지난 4월 '고성구간'과 지난 6월 '철 이 개방됨에 따라 남북분단의 상징이 기 위한 국민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비무 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모 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타링을 통해 외래종 유입, 야생동물 파주구간은 도라전망대, GOP 통문,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DMZ 평화의 길

분단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 트(http://www.dmzwalk.com)를 원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파주구간 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에서 추진됐 다.

> 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경호 걸쳐 주5일(월·목휴무) 개방한다. 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시장비를 확

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11일 경기도에 따르면지난해 얼린 4 기존에 사용 중인 김과 도로를 있는 그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 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방문을 Z'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원하는 이들은 'DMZ 평화의 길' 사이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대상자를 선정하며, 었던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 군은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하는 국 때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최님준기자 baikal@incheon@bo.com